

Studio DAC:

다른 모양의 마음

아트 클래스 – 토크

[TEXT-읽기] 시

이훤

일시

2025. 12. 5(금) 오후 7:30-9:00

시 읽기

1) 모양이 다른 여러 사람의 방에 들어가보는 일

이해와 경험의 영역

장소

Studio DAC

2) 방의 배치, 가구, 문과 창의 크기를 살피며 읽기

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

3) 나를 움켜쥐는 이미지에 반응하기

낭독 1 : 『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』 (P. 32), 「이팝나무」, 이훤 말하기에서 시작되는 시 쓰기

— 믿고 싶은 것들을 선언하며 쓰기

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마음들을 향해

낭독 2 : 『양눈잡이』 (P. 38), 「소년이 소년을」, 이훤 시간 빗기

— 있었던 시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글쓰기

—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시공간 만들기

낭독 3 : 『엔딩과 랜딩』 (P. 42), 「우주 밤」, 이원석 기억을 비틀기

— 계속 실루엣이 달라지는 기억

— 변모하는 기억의 부피

— 어떤 장면을 빼놓고 우릴 설명할 수 없다

— 나의 장면과 세계의 장면을 연결시키는 이미지

두산아트센터

교육 프로그램

2025

겨울

두산아트센터 투어

두산아트스쿨: 미술

Studio DAC: 아트 클래스

Studio DAC POST

낭독 4 : 『여가생활』 (P. 47), 「모두의 여섯 번째 친구」, 김누누 우정하고 얹히기

— 시에서 은밀해지기

— 적나라함과 유머, 둘 다 쟁취하는 시

**낭독 5 : 경향신문 <땀과 정신이 뒤섞이는>, 이훤
시와 산문은 어디가 닮았을까? 어떻게 다를까?**

- 압축된 우리
- 세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충동
-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기

**낭독 6 : 『여름 대삼각형』 (P. 31), 「부재증 전화」, 정다연
분투하는 풍경**

- 시의 기둥이 되는 이미지들
- 쌓이고 중첩되는 이미지
- 시기에 따라, 머물고 연결되는 대상이 달라지는 세계

**낭독 7 : 「손뼉 소리」 (<<파란>> 겨울호) 수록, 이훤
새로워지고 싶은 마음**

- 섬에 머무는 동안 쓴 시
- 사는 일이 그렇듯, 작가도, 작가가 쓰는 텍스트도 계속 변한다

소회와 질문

이훤 (시인, 사진가)

정지된 장면을 발견하고 만들고 있는 사람. 두 언어를 오가며 생겨나는 뉘앙스와 작은 죽음에 매료되어 시를 쓰기 시작했다.

시집 『양눈잡이』 『우리 너무 절박해지지 말아요』 시산문집 『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』 산문집 『고상하고 천박하게』 『눈에 덜 띠는』 등 여덟 권의 책을 쓰고 찍었다. 분절과 유격, 연결에 관심이 많다. <<공중 뿌리>> <<We Meet in the Past Tense>> 등의 전시를 가졌다. 아침마다 그릇 씻고 잡초 뽑고 고양이 변소 치우는 사람.